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9호 화각장
전수조교

한기덕





고 한춘섭 선생



▶ 화조문주칠삼총장

화각 공예

화각공예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공예기법으로써,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와 쌍벽을 이루는 조선시대의 왕실공예이며 한국공예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공예분야입니다.



▶ 연화문약장

화각공예란, 말 그대로 소뿔을 종이처럼 얇게 하여 투명한 종이장과 같은 각지를 만든 다음, 그 각지표면위에 그림을 그리고 단청안료로 채색을 하여, 채색한 각지면을 나무에 부착합니다. 이때 그림을 그린면이 투명하게 각지를 통과하여 비쳐보이게 됩니다.

즉, 각지가 캔버스 및 코팅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독특한 회화양식의 목

공예술을 말합니다. 화각공예가 일반 목공예품과 같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은 서민공예 즉 민속공예라기보다 조선시대의 사대부계급이상의 특수층에 애용되어온 귀족공예이기 때문입니다.

귀족공예란 고도의 기술과 재료의 희귀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용도면에 있어 사회적인 제약 등의 저축을 받는 공예를 가리키는 데, 이 화각공예가 귀족공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에 사용되어온 회화재료인 당채 재료가 신라시대 때부터 성골인 왕족계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들에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되었던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고수된 데서 비롯됩니다.



▶ 연화문문갑

이런 이유로 현재 유물로는 궁중유물전시관에 몇 점을 비롯하여, 소량의 작품들이 있을 정도로 그 유물은 희박할 정도입니다. 이는 색에 대한 사용이 신분계급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되는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각공예가 독창적인 공예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유의 재료를 개발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인데, 복채기술의 초기재료는 대모라는 거북이 등껍질이었는 데, 이 대모는 구하기도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예물함

화각은 신라시대(57B.C-A.D 935)에 중국, 일본에도 전래되었으나 제작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오래전에 사라지고, 오직 한국만이 까다로운 기법을 한국기후와 풍토에 맞게 재구성하여 계승한 공예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각공예품으로서 주로 생활용품인 실패, 반진고리, 머릿장, 이층장, 삼층장, 문갑, 사방탁자, 버선장을 비롯하여 손거울이나 경대, 그리고 보석함 등에 제작되어졌으며, 성질상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으며 특정한 상위계급들만이 향유한 공예로 인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 모란문경대

화각공예에 나타난 문양으로는 우리의 옛 조상을 모습을 나타내는 풍속
 화에서 무병하며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십장생(오래토록 장수하는
 동식물 및 무생물-해, 달, 산, 물, 구름, 돌, 소나무, 거북, 사슴, 학), 신성
 스러운 용(龍) · 호랑이(虎) · 봉황 · 신선 ·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고결하고 굳은 의지와 이상을 나타내는 식물), 기타 원앙 및 기러기
 등의 각종 동물문 등이 많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아름다움은 매우 찬란하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故 보유자 한춘섭과 전수조교 한기덕



▶ ebs 한국의미-공익광고장면

한기덕 씨는 고(故)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9호 화각장 한춘섭 선생의 전수조교로, 한 선생의 뒤를 이어 화각의 맥을 잇고 있다. 한 선생의 아들이기도 한, 한 씨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일찍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각의 길로 들어섰다.

한 선생은 17살 되던 해 조선시대 화각의 마지막 재현자인 고(故) 음일천 선생을 만나 화각을 시작했다. 이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오로지 화각의 길만 걸었다. 생활고는 물론 작품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때도 있었지만, 화각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렇게 그의 작품은 대한민국 화각의 대표작이 됐고,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메르켈 독일 총리 등에게 선물로 전달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화각의 단점을 보완해 화각공예기술을 한층 더 계승·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각은 아름다움이 뛰어나지만, 생물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개발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한 씨는 아버지의 화각의 맥과 아버지의 명성을 잇기 위해 꾸준히 작품에 몰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시장을 운영하며, 화각의 대중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화각의 재료

화각공예의 주재료는 소뿔(각지), 백골(소목), 안료(석채), 접착제(어교), 광택제, 옷(漆, lacquer, 옷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각공예품의 가장 중요한 소뿔, 즉 각지부분은 습기와 온도, 직사광선등에 의하여 보관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습도와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화각의 보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에 전해지는 화각 유품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입니다.

소뿔

지구상의 수많은 종류의 소의 뿔 중, 오직 전통 한우만이 화각공예에 사용되는 적합한 재료입니다. 그 한우 중에서도 황소뿔만 화각공예의 재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암소뿔은 천지각 또는



잡박뿔이라 하여 크기가 보통 작고, 방향이 위아래로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암소뿔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 송아지 뿔은 불투명한 은점 및 백선이 다량 존재하고, 늙은 황소뿔은 뿔에 검은 미역 줄기 같은 먹선이 존재하여 각지의 투명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황소 중에서도 2~4년생의 황소 뿔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크고 곧게 자라난 고추뿔이 최고입니다. 소뿔 재료 선정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기법 중 복채기법 때문입니다. 백선과 먹선이 지나치면 화각의 이면화면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화각의 강렬하고 화려한 문양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황해도에서 생산

된 한우뿔이 크고 곧아 훌륭한 뿔이었다고 전해집니다만, 현재는 예전처럼 소에게 여물이나 풀등을 먹이지 않고 대부분 인공사료를 먹여 비육소(식용을 위해 사육하는 소)로 키우기 때문에 좋은 뿔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다수의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수지타산의 이유로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져, 해가 갈수록 재료수급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우의 수급문제로 재료를 구하기 힘들면, 다른 뿔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소의 뿔은 그 투명도가 좋지 못하며, 혹 투명도가 나온다 하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표면이 뿌옇게 변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닙니다.”

이 황소뿔을 이용하여 각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뿔의 끝과 뿌리 부분을 평톱으로 잘라 낸 후, 과귀로 거른 부분을 깎아 냅니다. 과거에는 제법 큰 각지를 얻었는데, 현재는 보통 12 × 8 센티미터 정도를 구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황소뿔에 먹선과 백선이 많아 쓸 수 있는 뿔은 1000 개중 1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FTA 타결 등으로 국내 한우 사육 농가가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의 화각공예 전승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백골

일반적으로 백골은 화각공예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기 쉬운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각지를 부착하여 화각공예품을 만드는 경우,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각지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역시 백골도 나무로 된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습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습도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비록 미세한 정도이지만 나무는 수축과 팽창, 혹은 뒤틀리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백골에 부착된 각지에 영향을 주어 각지의 변형을 유발하고, 급기야는 각지의 갈라짐 및 심한 경우에는 백골에서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골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좋은 백골이란, 나무가 잘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각 부분에 적합한 수종의 나무로 제작하여야 하는데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무른 나무로는 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막연히 “나무는 괴목이 가장 좋다, 먹감나무가 가장 좋다.”는 등의 풍문에 현혹되어 백골을 제작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만 될 뿐입니다. 나무의 성질을 잘 살펴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선(界線 : 한우 사골, 갈비뼈)

계선은 일반적으로 소의 사골이나 갈비뼈를 사용합니다. 뼈를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으면 누런색을 지니던 뼈가 흰색으로 변하는데, 이럴 때 꺼내어 실톱으로 아래 부분이 역삼



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합니다. 계선은 각지가 맞닿는 경계선을 메워 각지의 이탈과 뒤틀림을 막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아울러 화각 채색의 색감을 전체적으로 두드러지게 하고 전체적인 조화와 아기자기함을 뽐어내는 미적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함과 같이 여러 장의 각지가 모자이크처럼 붙은 작품에서, 계선은 각각 따로따로인 화각 그림을 하나로 묶어 통일성과 조화로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4. 석채

화각공예의 쓰이는 안료로 석채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색을 주로 사용하였던 궁궐 단청이나 회화에서 사용한 안료인 석채가 역시 화각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 석채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여 당채라고도 합니다. 석채는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에서 얻은 재료로, 색소가 들어있는 돌을 갈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석채는 과거나 현재나 모두 중국, 일본등지에서만 생산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석채는 아교 및 어교에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석채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교와 어교의 적절한 혼합 및, 계절에 따른 농도의 변화에 주의하여 채색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석채의 원료인 안료는 원래 진채(眞彩) 또는 암채(岩彩)라 하여 천연 광물 질 색감을 사용하였는데, 이 안료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료란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유색 미립자상의 무기(無機) 또는 유기(有機) 화합물의 착색제로서 접착제와 혼합하여 해당물건에 칠을 하면 도막(塗膜)이 형성되어 성형물에 아름다운 색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석채가 다른 화학적 물감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깊이감이 더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물의 가루이기 때문에 표면이 밝게 빛나 화각공예품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현재는 이 석채와 더불어 화학적으로 제작한 단청안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물에 단청을 한 것은 목조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고, 기품이 있도록 보이기 위한 미적 측면도 있었지만, 아울러 벌레의 침입을 방지하고 방습

효과를 주어 목조건물이나 목공예의 부패, 침식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청의 기본 빛깔은 청, 적, 백, 흑, 황의 다섯 가지로, 오채라고 부르며, 오행사상을 나타냅니다. 이 다섯 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혼합해 수많은 빛깔을 냅니다.

단청에 쓰이는 안료들로는 우선 유기질 안료인 시아닌그린(cyanin green : 靛綠色), 퍼머넌트 오렌지(permanent orange : 長丹色), 퍼머넌트 옐로(permanent yellow : 石黃色), 톨루이딘 레드(toluidine red : 朱紅色), 퍼머넌트 블랙(permanent black : 먹)이 있고, 무기질 안료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R 760 : 白粉色), 아이언 옥사이드 옐로(iron oxide yellow : 黃土色), 호분(胡粉),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 洋綠色), 리드 레드(lead red : 長丹色), 코발트 블루(cobalt blue 7117 : 群青色), 아이언 옥사이드 레드(iron oxide red : 石間裸色), 크롬 옐로(chrome yellow : 石黃色), 크로미움 옥사이드 그린(chromium oxide green : 荷葉色), 울트라마린 블루(ultramarine blue : 群青色) 등이 있습니다.(이상은 문화재관리국 규격 안료)

접착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접착제란 어떤 두 물체를 접착시킬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말합니다. 화각에서 접착제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접착제의 성질 여부에 따라서 각지가 얼마나 백골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쓰이던 전통적인 방법은 부레풀(민어풀)이나 아교, 명태피 등이었습니다.

부레풀

부레풀은 목공품 접착제로서 어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물고기의 공기주머니인 부레를 잘 말리어 두었다가 물을 넣고 끓여서 만드는데, 민어의 부

레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풀은 투명성이 있어 단청안료와 혼합하여 쓰였으며, 기물에 나전이나 화각을 붙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용성이어서 각지를 백골에 접착 시, 잘못된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내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또한 단점이기도 해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습도에 약한 면을 보이고 맙니다.

아교

아교는 소나 말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일명 갓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부레풀처럼 완전히 굳기 전에 뜨거운 물로 닦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부레풀보다는 투명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 가열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과 더불어 풀 두께가 두껍게 오른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태피

명태피는 명태에 붙어 있는 비늘과 가시를 잘 손질하여 씻어 낸 후, 물에 넣고 끓여내어 체로 걸러 그 액만을 받아내서 사용합니다. 과거에 화각공예에서는 이러한 아교, 부레풀, 명태피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주로 백골에 각지를 붙일 때, 그리고 석채를 쓸 때 이용되었습니다.

연마제와 광택제

연마제를 사용하는 시기는 화각공예제작의 마지막 작업공정중 하나입니다

다. 표면 고르기라는 작업에서 화각 이음새 부분의 미소한 요철과, 각지와 계선 등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를 맞추기 위해 면을 갈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도구가 갈기용 재료인 숯돌, 갈기숯, 속새, 사포, 상어피 등입니다.

광택제는 토분, 간장, 녹각분 등이 사용됩니다. 숯돌은 곱기가 다른 몇 종류의 것을 사용하며, 물을 주어가면서 표면을 평면으로 유지되도록 갈아내는데 사용됩니다. 갈기숯은 은행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든 숯인데 몹시 곱기 때문에 윤이 나기 전의 상태로 갈아내는데 쓰입니다. 속새는 목부라는 여러 해살이풀의 이름으로, 규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예로부터 목공예나 골각 공예품의 표면을 곱게 닦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각질의 광택을 내는 재료로는 토분을 비롯하여 녹각분, 간장을 사용하는데, 이 중 토분재는 황색이 도는 고운 흙으로, 점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황토라고 합니다. 황토를 물에 풀어 돌을 침전시킨 후, 위에 떠 있는 고운 가루를 건어낸 뒤 두유에 풀어서 부드러운 면포에 찍어 사용합니다. 녹각분은 사슴뿔을 불에 달구어 하얗게 된 것을 식히지 않은 채 찬물에 담그면 그대로 분해 되어 고운 분말이 됩니다. 이 녹각분을 물 묻힌 면포로 찍어가면서 문질러 광택을 내게 됩니다.

7. 옷

화각을 제작할 때 백골 내부나 외부에 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칠이 옷칠입니다. 일반적으로 옷칠의 구분은 표현하고자 하는 색감 등에 따라 나누는데, 화각에서는 주로 생옷칠, 흑칠, 생옷칠에 주색(朱色)안료를 넣어 사용하는 주칠 등 3가지 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옷은 매우 우수한 도료로써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만 발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내구성이 요구되는 기물에 옷칠을 입히면 표면에 견고하고 단단한 막을 형성할 뿐 아니라 광택이 나고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변

하지 않아 목기류의 보존에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양에서는 4,000년 전부터 칠기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단순한 생활도구 뿐 아니라 각종 예술품, 금속이나 목공도장용, 칠기류 등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알칼리와 산에 강해서 쉽게 녹지 않으며, 부식 등이 일어나는 염분 및 약품 등에 저항성이 있고, 방수와 방부에 뛰어난 특성을 나타내는데다, 전기가 통하는 절연성도 우수하여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그 쓰임새는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 도막의 우수한 성질 때문에 심지어 해저 케이블선, 선박, 비행기, 각종 기기 등에 이르는 무공해 산업도료로 이용 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료로서의 우수함 뿐만 아니라, 옷은 예로부터 인체에 유익하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옷담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길, 옷은 “성질은 따뜻하고(溫) 맛은 매우며(辛)독이 있다. 어혈을 삭히며, 산가증(산후통)을 낫게한다. 소장(小腸)을 잘 통하게 하고 회충을 없애며 뜸뜸한 적(積)을 헤치고 혈훈을 낮게하며 3층을 죽인다. 전신 노채(전염성 결핵)에도 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산림청 임업연구원 에서 옷나무과 붉나무의 열매인 오배자에서 폐암, 난소암, 피부암 등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는 항암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계에서도 옷나무는 복강 내의 종양성 질환에 특효가 있으며,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생겼을 때와 위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옷칠은 단순한 전통 칠의 차원을 떠나 우리 조상들의 영지(英智)가 빛나는 뛰어난 유산인 것입니다.

장식

장식이란 “목공예 같은 생활용품을 제작할 때에 기능의 필요성에 의해 몸체에 부착되는 금속재의 장식을 통틀어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선 목가구는 목재를 사용하여 가구를 제작하기에 기후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성격상 목재가구는 습기와 온도에 따른 나무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목가구의 내구성에 무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나무를 제작할 때 사개물림이나 손가락물림, 축짜임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수축과 팽창에 대처하였으나, 보다 완벽하게 이를 보완하고자 마무리로 장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석은 주로 나무의 이음새부분이나 하중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사용됩니다. 장석은 크게 기능을 위한 장석과 구조적 보강을 위한 장석으로 구분되지만, 미적인 고려에서도 장석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위한 장석 사용 종류

- 경첩 : 대칭이 되는 두개의 금속판 기둥 축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리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 들쇠 : 목가구의 위판이나 큰 가구류의 좌우 옆널에 부착되어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거나 서랍이나 문짝에 부착되어 잡아당길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 고리 : 환봉(절단면이 둥그런 금속재 막대기)이나 각봉(절단면이 각이진 모양의 금속재 막대기)등의 금속재를 구부려 만든 작은 손잡이를 말합니다.
- 자물쇠 :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비밀을 유지하고자 만든 장치입니다. 자물쇠는 일반적으로 열쇠와 함께 제작됩니다.

구조적 보강을 위한 장식 사용 종류

• 감잡이 : 목가구에서 동자(보조 기둥)와 기둥이 맞물려 있는 곳이나 기둥의 모서리 부분에 구조적인 보강을 위해 부착한 장식을 말합니다.



• 자물쇠앞바탕 : 자물쇠가 위치하는 목재 면에 자물쇠가 직접 목가구에 접촉하지 않도록 자물쇠앞바탕을 부착함으로써, 접촉부위의 훼손 방지와 구조적보강을 위해 만든 장식입니다.

• 귀잡이 : 목가구의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상으로 주로 제작하며, 용도는 모서리에 직각으로 맞물린 목재를 벌어지지 않도록 보강한 장식입니다.

• 통귀얌 : 목가구에서 천판(상판면)에 주로 사용되는 장식으로 3면을 감싸는 장식입니다. 귀잡이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조그마한 함이나 경대 등에도 많이 사용된 장식입니다.

• 광두정 : 변형된 못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함이나 반닫이의 전면부에 많이 장식하는데,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화, 수선화 문양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못을 감추거나 들쇠등이 목재와 닿지 않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갖춘 장식입니다.

장식의 색 - 재질에 따른 종류

다음으로는 장식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식의 색깔은 그 재료에 따라 다른데, 이는 제작하는 금속의 고유한 색에 따른 것입니다. 검은색은 철(鐵, iron)장식, 은백색은 백동(白銅, cupronickel)장식, 황색은 황동(黃銅, brass)장식으로 구분됩니다.



▼ 철장식(반단이 일부)

철은 공기중에서는 산화하지 않으나, 습기와 온도가 높으면 적갈색으로 표면을 산화하여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표면을 검게 착색하여 철장식을 제작하였습니다. 주로, 반단이 앞바탕이나 광두정, 돌쩌귀 등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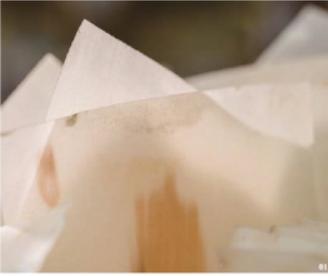
▼ 황동장식(화각머릿장)

황동이란 구리에 아연을 섞어 만든 합금으로, 놋쇠라고도 부릅니다. 일부에선 이것을 신주(혹은 신쭈)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어 신추(신쭈 : 眞鍮, しんちゅう)이므로 가급적 놋쇠나 황동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고급 목가구나 유기그릇에 대부분 황동이 사용되었지만 황동은 검게 산화하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백종장식(화각머릿장)

구리에 니켈을 섞어 만든 합금으로, 은백색을 나타냅니다. 이 백동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동전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백동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장인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장식으로서의 사용은 근대부터입니다. 백동은 황동에 비해 다루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녹이 잘 발생하지 않으며 흑 표면이 산화되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푸르스름한 빛이 생겨 미관상으로 깊은 맛을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시름을 써 닦게 갈아서 투명하고 고운 각지 이, 각지 아랫면에 그림을 돌고 먹만 날기 이, 색채로 채워하기 이, 완성된 각지 표면을 갈아 투명하게 해만지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29호

경기 문화 재발견 시리즈 18

쇠뿔에 담은 혼(魂)

화각장

경기 문화 재발견 시리즈 18

쇠뿔에 담은 혼
화각장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 ▶ 쇠뿔에 담은 혼(경기문화재단 제작, 경기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한기덕 이력사항



▶ 일본nhk 화각공예 소개촬영

한기덕 1974.11.15. 일생

- 2005. 2 경기도 무형문화재 29호 화각장 전수조교 인정
- 2002. 8 화각공방 입문 (아버지 가업 계승)
- 2003. 6 제33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특선 (화각 과반, 경기도)
- 2004. 10 제3회 한국옷칠공예대전 입선, 특선(원주시)
- 2004. 7 제34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화각보석함 은상(경기도)
- 2004. 9 제34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중소기업청)
- 2005. 10 제4회 한국옷칠공예대전 입선, 특선 (원주시)
- 2005. 11 제3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 2008. 10 제3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 2008. 9 제38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경기도)
- 2009. 9 성남시 모란공예대전 장려상(성남시)
- 2010. 9 제3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선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 2014. 5 제44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입선(경기도)
- 2016. 6 제46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입선(경기도)

개인전

- 2008. 12 궁중가구의진수-화각공예
한국공예문화진흥원제2전시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9. 12 화각공예 그 변화의 시작(경기문화재단)

초대전

- 2011.11.2 ~ 6 프랑스 문화유산 박람회 한국관 선정 작가
(프랑스 카루젤드 루브르 전시장)
- 2013.~2016 경기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전시회
(경기무형문화재 전수조교회) 외 등

출판물, 방송, 특강

- 2008년 8월호 HEREN - 신장인정신 - 게재(HEREN)
- 2009. 9 수원대학교 특강(수원대학교)
- 2011. 9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대학원 특강(국민대학교)
- 2014. 5 ebs 다큐프라임 기획광고 “색의향연” 출연(ebs 방송사)
- 2016. 3 동방유행, 화각경대 게재(가야미디어)
- 2016. 8 vogue 코리아, 화각실패 게재 (vogue)
- 2017. 9 반전상화2회 출연, 화각공예소개(TV조선)
- 2017. 10월호 “문화재사랑”에 ‘화각공예’ 게재(문화재청)



화각공예란, 말 그대로 소뿔을 종이처럼 얇게 하여 투명의 종이장과 같은 각지를 만든 다음, 그 각 지표면 위에 그림을 그리고 단청안료로 채색을 하여, 채색한 각지면을 나무에 부착합니다. 이때 그림을 그린 면이 투명하게 각지를 투과하여 비쳐 보이게 됩니다.

문의 : 010-2508-1789